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두달째 상승
- MarketWatch: Case-Shiller, “4월 미 주택가격 상승...회복세”
- WSJ Real Time Economics: 항공기 수요 급증 - 한국인 연령 ‘젊어진다’ - 영화관 판매액 아직 회복 안 돼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 “내년도 주식 수익률은 보험세 유지한다”
- Bloomberg: 30년 모기지율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뉴욕시]

- CNN Business: 로어 맨해튼 진입 운전자에 ‘혼잡세’ 내년 봄에 실시

[오일]

- Bloomberg: 유가, 금리 우려로 68불 아래로 하락

[부동산]

- NYT: 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 WSJ: 호텔 Four Seasons & Plaza Hotel “팬데믹 이후 복귀 계획 중”

[글로벌 경제]

- CNBC: HSBC, “침체 시기 미국은 올해, 유럽은 내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Lordstown Motors, 파산 신청한다
- Bloomberg: Walgreens 주가 하락... 팬데믹 수요 감소에 따른 전망치 하향 조정 때문
- Bloomberg: Bernstein, “Alphabet AI 분야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경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Orders for US Business Equipment Increase for a Second Month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두달째 상승

- 4월과 5월 연속으로 미 비즈니스 장비 생산주문 건수가 상승, 기업들이 높은 차용 비용과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들 투자를 측정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 가치는 4월에 0.6% 하향 수정후에 5월에는 0.7% 상승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 모든 내구재 주문은 1.7% 올랐다. 운송은 7%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MarketWatch: U.S. home prices rise in April, signaling a recovery in the sector, Case-Shiller says**Case-Shiller, “4월 미 주택가격 상승...회복세”**

- 미 주택 시장이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4월에 상승했다.
- 주택 소유자들이 팔기 싫어해 모기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20개 도시 S&P CoreLogic Case-Shiller house price 지수에 따르면 3월에 비해 4월에는 0.9% 상승했다.
- 주택 가격 상승세는 동남부가 가장 강했으며 나머지는 하락세를 보였다.
-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7%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가 조정되어도 구매자의 수요를 꺾지 못하고 있다. 4월 주택 가격은 -1.7%로 지난달의 연율 -1.1%보다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 주택 가격 전국 지수는 4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0.2% 하락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전월 비교는 올랐지만 연간으로는 하락한 것이다.

Market Watch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항공기 수요 급증 - 한국인 연령 ‘젊어진다’ - 영화관 판매액 아직 회복 안 돼**[항공기 수요 급증]**

- 항공기 주문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올해들어 지금까지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 업체는 1천4백29대의 에어버스와 보잉 제트기를 주문했다. 이는 2019년 전체 연간 주문량 1천3백77대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인 연령 ‘젊어진다’]

- 한국인들 연령은 이제 만으로 계산된다. 그동안에는 태어날때 1살이 되고, 1월 1일 모두 한살을 더 먹는다. 따라서 새해 바로 전날 태어난 아기는 하루가 지나면 두살이 된다.
- 새로운 법에 따라 태어난 날 부터 0세 부터 시작하는 국제 연령 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공문서에도 국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화관 판매액 아직 회복 안 돼]

- 팬데믹 이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미국 박스 오피스 총액은 현재까지 43억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 물론 이는 작년 이 시점에 존재했던 35% 감소 보다는 나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미국 금융]

Bloomberg: Goldman Strategists See Stock Returns Staying 'Fat and Flat' Over Next Year

골드만, “내년도 주식 수익률은 보합세 유지한다”

- 이 기관은 내년도 주식 수익률이 대체로 보합세(flat)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슈는 장기적인 금리 상승과 거품이 낀 벨류에이션 때문이라는 것.
- 이 기간에 따르면 올해 주식 상승은 2022년 말에 시작된 경기 사이클 후반의 '낙관주의' 단계와 일치하며, 중앙은행의 긴축과 인공지능 과대광고 때문에 기술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주식 시장의 절대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이며, 전략가들은 올해 실제로 수익 성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30-Year Mortgage Is Saving the US Economy ... or Is It?

30년 모기지율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요지: 장기적인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은 주택 시장의 붕괴를 막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의 역동성은 떨어뜨리고 있다.
- 미국 주택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이 더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른국가들은 이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 미국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다. 30년 만기 모기지는 존재해서는 안 되면 금융 상품이며,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의 붕괴를 막고 있는 유일한 요인 일수 있다.
-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미국만큼 인기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 1938년에 설립된 Fannie Mae와 1970년에 설립된 Freddie Mac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매입하여 이자율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모두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한 가구에 30년 동안 고정 금리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 2021년에는 모기지 신청의 2.2%만이 변동금리 모기지였는데 반해 2022년에는 모기지 신청의 85%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였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CNN Business: Congestion pricing is coming to New York City, officials announce****로어 맨해튼 진입 운전자에 '혼잡세' 내년 봄에 실시**

- 뉴욕시가 로어 맨해튼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뉴욕 주지사 Kathy Hochul이 어제 월요일 발표했다.
- 이 결정으로 뉴욕시는 빠르면 내년 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밑에 있는 교통 혼잡지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피크 시간대의 경우 차량당 9달러에서 23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오일]**Bloomberg: Oil Slips Near \$68 Under Pressure From Interest Rate Concerns****유가, 금리 우려로 68불 아래로 하락**

- 유가가 배럴당 68불 아래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이 글로벌 성장 전망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 이상 하락했다. 뉴욕 유가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과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역풍으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러시아 원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5월 초부터 현재 수준에 근접한 유가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NYT: What Is Happening in the Housing Market?****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조치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약 7%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 중앙 은행은 지난 15개월 동안 공식 정책 금리를 약 5%로 인상 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를 통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억제하여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처음에는 이자에 민감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데 빠르게 적용되어 작년에 미국 전역의 주택 시장이 눈에 띄게 후퇴 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 기술직 종사자인 Gianni Martinez씨는 마이애미 부동산 경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2 베드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그는 계약금의 25%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비싼 모기지를 받는 대신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다.

NYT 기사

WSJ: Two of New York's Most Famous Hotels Plan Their Postpandemic Comebacks

호텔 Four Seasons & Plaza Hotel “팬데믹 이후 복귀 계획 중”

-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Four Seasons 호텔은 계약 분쟁에 휘말리면서 3년 동안 문을 닫았다. 센트럴 파크에서 몇 블록 떨어진 Plaza Hotel은 건물 대부분이 출입 금지인 상태로 있었다.
- 하지만 이 두 호텔의 소유주인 Ty Warner는 호텔을 재개장하는 계약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A U.S. recession is coming this year, HSBC warns — with Europe to follow in 2024

HSBC, “침체 시기 미국은 올해, 유럽은 내년”

- HSBC 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2024년에는 위축의 해가 되며 유럽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이 은행의 자산 관리팀은 올해 중반 시점의 전망에서 많은 경제들이 경기 침체 경고가 ‘깜박거리는 적신호’이며, 재정과 통화정책이 주식과 채권 시장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글로벌 전략가 Joseph Little은 “우리는 이미 완만한 수익 불황에 빠져있으며 기업 채무 불이행도 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Lordstown Motors Files for Bankruptcy
Lordstown Motors 파산 신청한다**

- SPAC는 이번주 화요일,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Lordstown Motors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이 회사의 파산 신청은 투자 파트너인 대만의 제조 회사 Foxconn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이뤄졌다. 이는 전기 트럭 제조업체의 주식 1억 7천만 불을 매입하려던 협상이었다.
- Lordstown은 생산 문제에 부딪힌 후 2021년 11월, 이전 GM 공장이었던 오하이주 북동부 공장을 Foxconn에 매각했다. 거래의 일환으로 신차들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했었다.
- Foxconn은 화요일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Lordstown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Lordstown이 거짓 발언과 악의적인 공격을 했으며 투자 계약을 이행하길 꺼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Walgreens Falls as Outlook Slashed on Fading Pandemic Demand**Walgreens 주가 하락... 팬데믹 수요 감소에 따른 전망치 하향 조정 때문**

- Walgreens 주식이 2020년 말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전염병 수요 감소와 의료 서비스의 느린 전환으로 타격을 입어 회계 연도 수익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 이 회사는 10%나 하락한 28.41불이다. 이는 2010년 11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이벌 회사인 CVS Health는 3.2% 하락했다.
- 이 회사는 화요일 발표문에서 연간 조정 순이익이 주당 4~4.05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4.45~4.65불에서 감소한 것이다. 3분기 조정 순이익은 주당 1불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인 1.06불에 미치지 못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lphabet Moving 'Too Fast' in AI, Bernstein Warns in Downgrade**Bernstein, "Alphabet AI 분야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경고**

- 알파벳은 화요일 또 한 번 등급 강등을 받았다.

- 주가는 시장 성과로 하향 조정된 후 1.5% 하락했다. 올해 30% 이상 상승했지만 지난 7일 중 여섯 번째 마이너스 세션을 기록했다.
- Bernstein은 알파벳이 AI 분야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핵심 검색 결과에 GenAI를 통합하려는 선부른 추진은 검색 광고 가격에 단기적인 에어 포켓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등급금 강등으로 알파벳의 컨센서의 의견 등급은 5점 만점에 4.655 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년 전은 5점 만점에 4.961점이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상승세' 美증시에 조정 우려 경고음...대형기술주 투자의견도↓

모건스탠리 "미 증시 우려의 벽 직면...조만간 대규모 매도 촉발"

UBS, 알파벳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골드만삭스, 테슬라 '보유'로 낮춰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온 미국 증시에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강세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도 잇따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미국 증시 약세장을 전망해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의 미국 주식 담당 총괄 마이클 월슨은 이날 미국 주식이 우려의 벽에 직면해 조만간 대규모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